

# 강진군 인구정책 '감소 제로화'로 대전환

다양한 시책 불구 2014년 4만명 붕괴 꾸준히 감소  
인구 늘리기 현실적 한계... 종합대책 추진계획 마련

“올해부터 감소폭을 줄여 2020년까지 제로화를 달성하자.”

강진군이 내건 인구 목표다.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종합대책’까지 마련해 추진하면서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 ‘인구 늘리기 대책’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진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장기 인구 늘리기 대책을 담은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 9월까지 발굴한 신규 정책을 2차 종합대책에 담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게 군의 기본 구상이다.

종합대책은 강진군의 실태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했음에도 ‘오히려 감소’한 점을 언급, 인구 증가 대책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으로 전입한 주민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다시 전출했다는 게 군의 분석이다.

강진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 자료에 따른 ‘30년 내 사라질 수 있는 소멸위험 지자체’다.

12만명이 넘었던 인구는 1965년(12만 7878명) 이후 1970~2000년대까지 10년마다 2만명 이상 감소, 1993년 6만명이 붕괴되고 2000년 5만명이 무너져나간 뒤 2014년에 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3만7533명이던 인구는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늘지 않고 지난달 3만7185명까지 감소한 상태다. 올전면은 1048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 800명까지 감소, 23.7%가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최근 7년(2011~2016년)간 인구 감소 비율은 9.25%이다. 이대로라면 15년 뒤인

2031년 인구는 3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강진군은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2011년에 걸쳐 8~19세, 20~39세 인구는 각각 26.6%, 20.4%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4.2% 오히려 증가했다.

강진군은 이같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인구 감소폭을 줄여나가 2020년 인구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군은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등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구 감소에 맞춰 지역활성화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 최근 6년간 인구현황(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1,599	40,241	40,079	39,860	38,758	37,753
전년대비 증감	-25	-1,358	-162	-219	-1,102	-1,005
인구 증감률	-0.06	-3.27	-0.40	-0.55	-2.77	-2.59
출생자	466	411	322	331	313	275
사망자	466	487	533	437	454	463

(강진통계연보, 외국인 제외)

군은 환경 조성도 본격화한다. 신생아 양육비·출산준비금·임산부 초음파검진비·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방안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이는 한편, 여성일자리 자격증반 운영·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등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도 관심을 쏟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진산단의 경우 지난해(6개 기업 87명 고용)보다 많은 20개 기업 유치를 올해 목표로 삼아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200여명의 신규 일자

리 창출이 기대되는 강진배야채 골프리조트의 조성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강진군은 이의 ▲청년농부 육성 ▲청년 예술가 창작 공간 조성 ▲마을기업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산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신규 인구 정착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강진군은 이달 내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열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장흥·강진·영암 3개군 상생 바둑교류전

장흥·강진·영암 등 3개지역 바둑 동호인들의 잔치(사진)가 펼쳐졌다

14일 장흥군 바둑협회에 따르면 장흥·강진·영암 3군 상생 바둑교류전이 최근 장흥군민회관에서 지역 바둑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눠 지역 동호인들간 친목을 다지며 생활스포츠인 바둑을 즐겼다.

단체전 우승은 영암군팀이 차지했고 개인전은 갑조(인터넷 단급 이상)에서는 박지현(영암읍), 을조(인터넷 단이하급)의 경우 황호용(강진)씨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장흥바둑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바둑동호인대회를 열어 바둑 문화 활성화 및 지역 교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소방서 해상 구조훈련

강진소방서(서장 박용기)는 최근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출렁다리 인근 해상에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난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강진소방서 제공>

## 제철 맞은 영암 무화과 본격 출하

영암군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가 제철을 맞았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무화과가 이달 들어 본격 출하되는 등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영암은 국내 무화과 첫 시배지(1973년)로, 지난해 지역 804 농가가 420ha에 걸쳐 5408t의 무화과를 생산해 3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전국 재배면적의

60%가 영암이다. 영암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2015년 무화과특구를 조성하고 오는 2020년까지 18개 무화과 재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무화과 축제를 열고 홍보·판매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천기자 jbh@

## 4인 이상만 주문받던 강진한정식 1~2인 소규모 예약도 받습니다

혼자나 2명만으로도 강진한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강진 한정식은 그동안 4인 기준으로 차려지면서 1~2인 소규모 여행객의 경우 부담스러움이 적지 않았다.

강진군은 강진한정식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누리집(www.gjhhs.kr)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4인 이상이어야 주문이 가능했던 한상 차림의 경우 1~2인 소규모로도 예약이 가능하게 됐다.

단, 다른 방문객과 합석하는 조건으로 3인 이상을 구성해야 주문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적지 않다.

군은 낯선 사람과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데 따른 불편함 등은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 약속한 날짜로부터 사흘 전까지 3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가격은 1인당 2만 원으로, 강진군 돌담 한정식에서 시범 운영 뒤 지역 10여개 한정식 전문시당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한정식은 조선 시대 사대부와 왕족의 유패를 따라온 수라간 궁녀가 궁중음식 비법을 전하면서 탄생했다.

산과 들, 바다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재료와 궁중·향토음식 비법이 어우러져 맛깔스러운 상차림으로 발전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운영중인 장흥·강진·영암 3개 군 공동 홍보SNS인 남도산촌(村). <장흥군 제공>

## 장흥·강진·영암군 3개 지자체 SNS 공동 마케팅

페이스북·네이버 ‘남도산촌’ 운영... 먹거리·볼거리 홍보

“몽치면 효과가 커진다.” 지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벌이고 나서 눈길을 끈다.

장흥·강진·영암 등 3개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페이스북과 네이버블로그에 3개 군 공동으로 ‘남도산촌(村)’을 운영,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간 3개 군의 관광 전용 SNS를 운영,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SNS에는 한 해 동안의 지역별 축제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 주요 즐길거리와 가볼만한 곳, 별난 먹거리와 지역별 특산물 등이 자세하게 게재된다.

예를 들면 장흥의 대표적 먹거리인 삼합과 하모 사브사브 등을 즐길 수 있는 맛

집과 제 3회 작전매뚜기축제(9월 29~30일), 제 9회 마량미향축제(10월 4~6일)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이 사이트 운영을 도맡고 나머지 군은 예산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별로 분산된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 소개하면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제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치평동 삼성화재인근 중심상가

조청가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광산군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감정가 192,000,000 최저가 192,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면사무소인근 자연녹지 도시계획구역 토지 218평 감정가 34,000,000 최저가 34,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록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마록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매매가 5억2천
	▶서구 마록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장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대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3500백 시설비 9천 조정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원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